

산불로 인한 인적·경제적 피해



국방부 "산불 진화에 오늘도 장병 600명·헬기 49대 투입"

국방부는 “경남 산청과 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에 장병 600여명과 주한미군 헬기 4대를 포함한 총 49대(의무헬기 1대 포함)의 군용 헬기를 투입해 산불 진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투입된 인력은 후방 지역을 방어하는 육군 2작전사령부 예하 병력들 위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미 연합연습 ‘자유방패’ 종료 직후 산불 사태가 벌어지면서 약 한 달 가까이 임무에 매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조선일보)

산청 산불 213시간만에 주불 잡혀...이재민 2158명·시설 84곳 피해

30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을 기점으로 열흘간 이어진 산청 산불의 주불 진화가 마무리됐다. 21일 오후 3시 26분쯤 산청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뒤 213시간 만이다.

최초 발화 이후 산림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으나 강풍으로 화재 규모가 삽시간에 커지며 23일에는 인근인 하동 옥종면, 25일에는 진주 수곡면까지 화마에 휩싸였다. 이번 화재의 산불영향 구역은 1858ha다. 축구장 2602개에 달하는 규모로 산불 피해를 입은 셈이다. (출처: 조선일보)

정부, 10兆 규모 ‘필수 추경’ 추진... “산불 등 재해, 통상·AI, 민생에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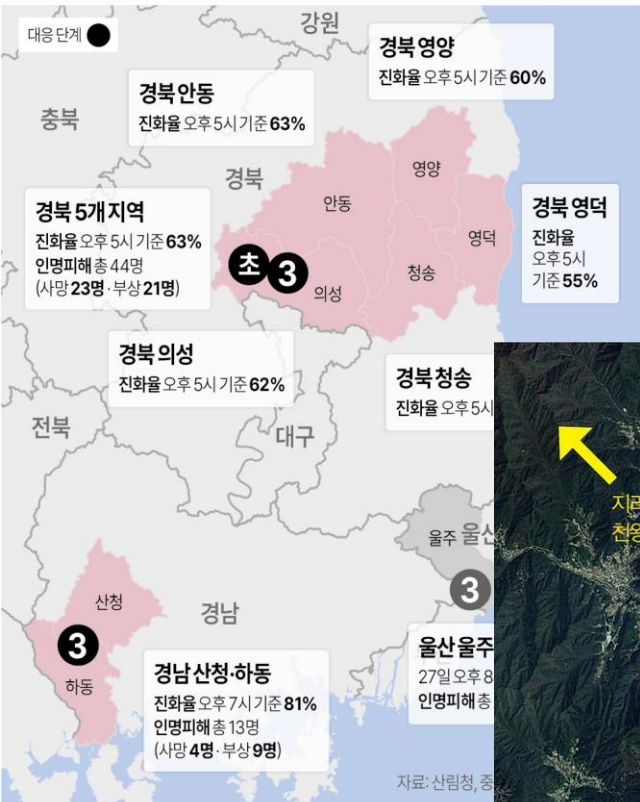
우선 이번 산불 참사와 같은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이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



전국 산불 지역

전국 산불 현황

3월 21~22일 발생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산불. 인명피해는 27일 오후 4시 기준



경북 의성 산불 피해 현황

